

VD Special

벤처인의 Harvest

테마인터뷰

평생을 발명에 바친 행복한 농사꾼

한국의 에디슨, 한국 발명학회 신석균 회장

한 평생 발명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 자동응답 전화기의 무한반복 테이프, 태양열 라디오 모자, 낚시용 접는 의자, 우유팩의 효시가 된 종이팩... 이것들은 모두 천여 건이 넘는 특허와 실용신안·의장을 국내외에 등록한 한국발명학회 신석균 회장의 발명품들이다. 도전과 모험이 벤처정신이라고 말하는 신석균 회장을 만나 그의 발명애기와 벤처인과 나누고 싶다는 '벤처씨앗' 얘기를 들어보자.

발명은 올곧이 내 삶의 전부

서울 종로구 평동 적십자병원을 돌이들면 허름한 고물상을 마주보고 있는 허름한 지하 작업실이 하나 있다. 바로 그곳이 지난 70년 동안 5000여 건을 발명한 한국의 에디슨 신석균(76)씨의 작업실이다. 종이로 만든 간판(?)만이 이곳이 한국발명학회임을 알게 할 뿐이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작업실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몹시 싫어하지요. 평생 발명만 하다보니 작업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더군요. 근사한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요? 제 머리가 바로 작업실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바 있는 신석균 회장은 다섯 살 때 처음 발명을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20년 전부터는 ‘매일 한 건 발명, 매주 한 건 특허출원’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도쿄세계전재회의 대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고, 1993년부터는 제네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전시회에 참가하여 13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발명·전시회 최대 메달 수상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 고령의 나이지만, 지금도 그의 수첩엔 깨알같은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이것들이 다 제 머리작업실에서 나온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발명아이디어를 적어 두죠. 아이디어가 넘치면 다음날 것도 미리 쓰고요…”

러시아어를 전공한 그의 수첩엔 러시아어를 비롯해 틈틈이 익힌 일본어, 독일어 등 총 5개 언어로 기록된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발명아이디어가 빼곡하다.

“지금 특허청에 계류 중인 건만 해도 300여 건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건 특허를 받았고, 남은 기간에 20여 건 정도 더 등록돼 올 한해 한 50건 정도는 받아야지요.”

인터뷰가 있던 날도 5건의 특허신청과 4건의 실용신안·의장등록이 이뤄졌다. 발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게 왕성했다.

발명은 벤처의 씨앗

“중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말할 하는데 제 생각에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단, 선진국 후미라는 거지요. 이렇게나마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건 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벤처인들 아닙니까?”

어찌면 반세기 앞선 벤처인이었던 신석균 회장의 모험과 탐구에 대한 일장연설이 이어진다.

“한국사람들의 민족성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참을성이 참 많아요. 참을성만 많은게 아니라 탐구 정신과 집중력도 뛰어납니다. 그뿐이겠어요? 지식욕도 강하지요. 인내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탐구하고, 지식도 있으니 모험에 대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인간은 모험을 하기 위해 태어난 동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결코 그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연설은 쉽없이 이어진다.

“지난 세월 우리는 일인이역을 통해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일당백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일기당천(一騎當千)하는 기술로 세계와 승부해야 합니다.”

발명과 모험에 대한 그의 열정이야말로 일기당천이고, 그런 자신감이 오늘의 수확을 일궈냈으리라. 도전을 사랑하고 후배 벤처인을 사랑하는 그는 지난 시간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성과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한다. 자신에게는 벤처의 씨앗이 될만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오다가다 꼭 한번 방문해 자신의 씨앗을 받아가라면서 말이다.

신석균 회장은 최근 회의 중에도 걸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개발해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100살까지 발명품 전시회에 나가겠다는 그의 말대로 언제까지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한국의 에디슨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 광학렌즈의 정의를 다시 쓰게 한 액체(울렌즈(맨위))

▲ 담배케이스 용 태양열 리더, 비오는 날 사용할 성냥이 보인다(위)

◀ 어음, 수표도 식별가능한 다기능 위조지폐 감식기를 설명 중인 신석균 회장(왼쪽)

▼ 5000여 건의 발명품 중 각종 전시회에서 획득한 그의 수확물(아래)

